

전남 미래 빛낼 으뜸인재 417명 첫 선

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증서 수여·봉사단 발대식' 장학금·글로벌 체험 기회 "지역 위해 해당 분야에서 최선 다해주길"

전남의 미래를 빛낼 으뜸인재 417명이 2일 도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치매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과학인재,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서울대 음대에 진학해 세계적인 첼리스트를 꿈꾸는 음악 인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드럼을 치며 버클리 음대 오디션을 준비중인 16세 소년, 고향인 고흥의 특산물로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고등학생 등이 그들이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왕인실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새천년 인재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최

고 인재로 성장,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일인재 417명은 ▲전남스타 200인(미래-예술-체육분야 리더 53명) ▲글로벌문화체험캠프(중학교 2년생 120명) ▲마이스터 현장연수(30명)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30개팀 129명) ▲글로벌비전캠프(17개팀 85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전남스타 200인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고 300만~5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장학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대상자들

에게는 4주간 영국·호주에서의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학교·마이스터고 학생들 30명은 독일·프랑스에서 2주간 마이스터 문화체험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30개팀에게는 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일인재는 꼭 1등이 아니라도 해당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항상 지역을 생각하고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학년 재학생인 최승아(스타 200인·과학 분야 미래리더) 으뜸인재가 "희망이여기를 통해 사교육 없이 전남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입학한 과정, 뇌과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새로운 꿈

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전남스타 200인 예능 분야 으뜸인재들이 모여 '아름다운 나라' 공연으로 행사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밖에도 스타 200인 이대환(여수중무고 2년) 등 분야별 대표들이 모여 지역공헌 선서문을 낭독하며 새천년인재봉사단으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영암 삼호읍 소재 장애인재활시설인 소정원 등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3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500억원을 집중 투입,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시·도 상생' 광주전남연구원 신입 원장 공모 23일까지 접수...박성수 현 원장 내년 1월 임기 마감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년 1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성수 현 원장의 후임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2016년 1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 원장은 지난해 말 임기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후임 원장은 공 공항 이전, 4세대 방사성가속기 등 광주·전남의 공동현안을 해법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친 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지역 내 싱크탱크로 육성할 수 있는 추진력과 광주·전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출연기관인 (재)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2일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원장 임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규정에 따라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임원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양식을 누리집(www.gjeri.kr)에서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전남연구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임 절차는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1인을 원장으로 선임으로 다시 통합했으며, 초대 원장으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했다.

민선 6기 들어 시·도 상생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된 연구원을 2015년 9월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다시 통합했으며, 초대 원장으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논란과 반대 여론에 밀려 허 전 장관이 한 달도 안 돼 퇴임하면서 재공모 절차를 거쳐 현 박 원장이 임명됐다.

박 원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원 내 젊은 인재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등 혁신을 추진할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봉사단 발대식이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최일 동신대총장, 으뜸인재, 교사,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강산 내 340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

김연철 통일부장관, 재활용 불가능 시설물 일부 철거 시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남측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에 대해 앞으로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철거로 대응하면서 돌과구를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이 시설물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가 철거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비하는 것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가 거론한 컨테이너 숙소는 온정리의 구룡마을과 고성향 금강빌리지를 뜻한다. 이들 시설물은 실제로 곳곳에 녹이 슬어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원상-감마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원상-감마 투자는 전망, 조건,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주최국에서 휴전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게 관례"라며 "아마도 지금 올림픽 결의안의 내용을 갖고 협의하고 있고 이틀 중순 유엔총회에서 관례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서 인도네시아 인류무형문화유산 본다

ACC '누산타라 컬렉션' 첫 공개...내년 6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개관 4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획한 특별 전시 '누산타라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CC 라이브러리파크 기획전 3에서 내년 6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 특히 누산타라의 와양과 크리스 등의 자료들은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의 다채로운 문화와 공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43개국, 7000여 점의 생활용품과 예술품 등 다

양한 문화자료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네덜란드 델프트 시가 기증한 '누산타라 컬렉션'이 처음 공개돼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누산타라는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옛 자바어로 인도네시아 제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족의 다채로운 문화를 일컫는다.

3부로 구성된 전시는 누산타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기간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조명한다.

1부 '바닷길 섬으로 인도하다'에서는 '누산타라'의 바탕을 이루는 신화와 종교를 살핀다. 바닷길을 통해 실려 온 이야기들이 현지의 수용 과정을

거쳐 사회와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상징체계로 변모한 내력에 초점을 맞췄다.

2부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에서는 섬 곳곳에 남겨진 삶의 흔적을 고찰한다. 건축, 복식, 의례도구, 생활용품 등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낸 다채로운 모습과 아울러 단일 국가체제 이전의 문화공유집단으로서의 누산타라를 조명한다.

3부 '세계와 교감하다'는 상징성과 예술성, 기술적 완성도, 역사성이 담긴 바틱과 크리스, 와양 등을 소개한다. 이 자료들은 특유의 독창성과 역사성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창조적 전통 계승이라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점에서 책 빌려보세요"

광주 7개 서점 대출서비스

내년 2월부터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광주 일부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도서관은 최근 지역 7개 서점과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업무협약을 했다.

참여 서점은 동구 광우서점,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점,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숲 등이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반납된 책은 시립도서관 소장자료로 비치된다.

다만 출간 5년이 지나거나 정가 5만원이 넘는 도서, 무등·사직·산수 등 시립도서관에서 10년 이상 소장 중인 도서, 시험서·스티커 북 등 소장 용도에 부적합한 도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업무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요건 충족이 가능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항목의 서류 첨부하여 우리 조합사업의 업무대행을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 ◆ 사업장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 3번지 일원
- ◆ 예상 건립 세대수 : 260세대
- ◆ 예상 대지 면적 : 17,225㎡

【입찰 자격 요건】

1. 주택법 제11조의 2항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해당서류 제출)
2. 자본금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적정수준 3억원이상 (해당서류 제출)
3. 최근 5년 이내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현장이 1개 이상인 업체 (실적 확인서 제출)
4. 제3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정도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 이상 추진 경험
5. 제3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정도가 준공 업무 추진 경험
6. 공고일 기준 국제 및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해당서류 제출)
7. 법인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및 2018년, 2019년(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8. 당 조합 업무대행 참여조건 제안서 (인력구성, 업무범위, 용역금액 등 세부내용)

※ 입찰 마감일 : 2019년 12월 6일
 ※ 입찰 방법 : 해당 서류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 e-mail로 접수
 ※ 접수 e-mail : hanjsoli79@naver.com
 ※ 연락처 : 010-8481-2730

진월동지역주택조합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북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담양 월산면 대지 2268㎡ 전원주택적합 교환가능 1억6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소벌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발성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문탄면 영산강변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철근-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살·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2억
- 농성동 상공화익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시유 적합 15억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만 1억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 내대지 등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인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경의면) 11050㎡ 다세대 빌라 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구매 계림동 소방도점 땅 142㎡ 2층집 164㎡ 집 좋은 1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